

대학생의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김 지 유(성균관대 박사과정) · 조 희 선(성균관대 교수)

I. 문제제기

사회적인 규범이 바뀌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며 가족 안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다양하게 지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저 출산율과 미혼율의 영향을 미치게 될 성인기로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므로써 결혼에 대한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충청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대학생 총 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가. 결혼가치관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결과 .707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에 대한 요인 분석을 결과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적, 배타적으로 4요인으로 나누었다.

나. 결혼이미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갖는 10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였고, 7등분하여 결혼에 대해 가진 느낌을 표시했다.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결과 .807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첫째, 성별에서 여학생이, 부모님 이혼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이성교제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가치관변인에서는 안정-적극적,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소극적, 배타적 결혼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이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미지 변인 모두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은 각자 동성 부모의 학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결혼 이미지가 좋은 학생들이 결혼기대연령도 높아 자신이 결혼준비가 되었을 때 결혼을 선택하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